

도톰하고 글래머스한 입술을 연출하는 방법

진한 립스틱과 투명한 립글로스가 만나면 보다 볼륨감 있는 립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입술이 도톰하면 코와 인중 사이의 길이가 짧아져서 여러 보이고 얼굴의 이목구비가 살아난다. 메이크업 스킬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확장시킬 수 있다.

'싱글플러스' (m.thesingle.co.kr)가 가을 무드를 담은 고급스러운 컬러로 글래머스한 입술을 연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BOLD LIP



1990년 셀럽들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브라운 컬러의 립스틱을 주로 발랐다. 거기에 립 라인을 또렷하게 강조해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까지 냈다. 당시의 톤 다운된 립스틱이 이번 시즌 다시 돌아왔고, 그때의 메이크업 방식 역시 그대로 적용됐다.

입술 안쪽에만 진한 컬러의 립스틱을 바르고, 립 라인을 진하게 강조한 것. 꼭 립스틱과 립라이너의 색을 맞추지 않고 투톤으로 위트를 더한 룩도 눈에 띈다. 보다 볼

륨감을 살리고 싶다면 안쪽에만 투명 글로스를 바르거나, 촉촉한 마무리감의 립스틱을 택하자.

■ EXTREME GLOSS



투명한 립글로스는 진한 립스틱을 발랐을 때 혹은 누디한 계열의 립스틱을 발랐을 때도 진가를 발휘한다. 그 이유는 영롱한 유리 구슬처럼 반짝이는 텍스처가 입술의 주름을 감쪽같이 가려주고, 얇은 입술을 도톰하게 살려주는 착시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평소 쓰던 촉촉한 립스틱 위에 투명한 글로스 혹은 립 오일을 발라보자. 입술이 더 글래머스해 보이고 싶다면 입술산에 촉촉한 윤기를 더하고 입술 위아래의 중앙 부분을 집중적으로 글로시하게 연출하면 된다.

사진=싱글플러스

■ 화장 TIP

안경 쓴 얼굴에 어울리는 화장법

■ **얼굴** : 얼굴 색상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 후 파우더로 가볍게 눌러주는 기본 메이크업 방법이 좋다. 굳이 펴 제품을 쓰고 싶다면, 티존에만 밝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 안경을 벗을 경우 코 옆의 화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눈** : 눈가는 되도록 밝은 톤의 아이 섀도로 화사하게, 눈매는 또렷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다. 스모키 메이크업 등으로 눈가를 너무 어둡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눈이 커 보이고 싶다면 아이라인과 마스크라를 같이 해줘도 좋다. 단 안경을 쓴 상태에서 너무 긴 속눈썹과 굵은 아이라인은 보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 **볼** : 안경을 쓴다고 해서 볼터치를 안 해도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볼터치는 항상 해주어야 한다. 볼을 강조하는 메이크업 보다는 은은한 색상으로 살짝만 볼터치를 해 생기 있는 볼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

■ **입술** : 적당히 글로시한 입술로 마무리. 지나치게 광택이 있으면서 색상이 강한 립 메이크업은 좋지 않다. 입술을 살짝 글로시한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고, 부드러운 핑크색이나 누드 계열 컬러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해주고 립글로스보다 글로시한 립스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포인트** : 눈 밑과 티존에 화사한 색상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면 낮은 킷대를 오히려 보이게 할 수 있다. 평소 다크써클이 있다면 눈 밑에 화사한 색상을 덧발라주어 밝게 표현하면 더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다. 핑크컬의 하이라이트 파우더로 눈 밑과 티존을 한번만 브러시로 쓸어준다.

더부러



청국장 명가
구수한 향과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여름 스페셜
시원한 맛과 고소한 향이 일품인 콩국수!



홍어조림



치킨



골뱅이무침



오징어 철판볶음



천엽무침



해물파전

런치 스페셜

12.99

(Weekdays)

비빔국수/졸면/칼국수
수제비/오징어덮밥/청국장
김치 or 해물볶음밥/콩국수
오므라이스/돈까스정식

술과 함께 즐기세요~



더부러

Double O | 909.597.3320

20627 Golden Springs Dr #1K, Diamond Bar, CA 91789